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5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16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5. 16. (월)	담당부서	전력진흥과
담당과장	김성열 과장 (044-203-5260)	담 당 자	조영길 사무관 (044-203-5267)

◇ 이제 학교나 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팔 수 있다 ◇

-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실시
- 금번 실증 참여 프로슈머 학교, 전기판매로 최대 10% 전기요금 절감
- 프로슈머 거래 7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Ⅰ. 프로슈머 거래 확산

□ 앞으로는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뿐만이 아니라 **학교·빌딩·상가 등의 대형 프로슈머도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**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을 확대

□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·상가·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**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**

* 프로슈머 거래단계 : (1단계)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, (2단계)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거래, (3단계)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

○ 학교·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**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**

-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**아파트·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**

* (현재)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 → (개선) 이웃 등 전기사용자에게도 판매

○ **대형 프로슈머는** 아파트에 부과되는 **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**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

* (프로슈머) 태양광 발전설비 보유, 남는 전력량, (소비자) 프로슈머와 동일배전망, 높은 전기요금

○ 이러한 대형 프로슈머 거래는 우선 **한전이 양자간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 반영하여 정산**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할 계획

* 대형 프로슈머 거래, 민간사업자 역할, 수수료 및 정산 근거 (「소규모 전력거래 지침」 개정, 5.3일)

Ⅱ. 2단계 프로슈머 거래 기대효과

□ **(프로슈머) 전기 판매 대상**(한전, 전력시장, 이웃 주택 → 이웃 아파트 및 이웃 빌딩)**을 확대**하고 판매수익을 통해 **전기요금 절감 효과 거양**

□ **(소비자)** 아파트·상가 등이 한전 이외에 대형 프로슈머로부터 사용전력의 일부분을 공급 받음으로써 **누진제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**

Ⅲ. 2단계 대형 프로슈머 시범사업 착수

□ **학교가 아파트**에 판매하는 모델, **빌딩이 다수 주택**에 판매하는 모델 등 **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5.16(월)부터 착수**

< 2단계 시범사업 개요 >

▪ 착수식 : (일시) 5.16. 15:00~ (장소) 상현초등학교(서울 동작구), (주요내용) '프로슈머-소비자간 의정 체결 등
▪ (프로슈머) 상현초등학교(발전설비 91kW), (소비자) 중앙하이츠빌 아파트(544세대)

① **(학교→아파트)** 옥상 등에 **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**에서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 내에 있으며 **높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**에 판매

* (프로슈머) 상현초등학교(발전설비 91kW), 전기요금(월)의 최대 10%에 해당하는 판매수익 확보
* (소비자) 중앙하이츠빌 아파트(544세대)

② **(빌딩→주택) 빌딩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**를 주변에 **전력사용량이 많은 다수의 주택**(3가구)에 판매

* (프로슈머) 화경빌딩(발전설비 9kW), 최대 전기요금(월) 10% 절감
* (소비자) 주택3가구(400kWh이상 사용), 주택 중 최대 전기요금(월) 50%절감

Ⅳ. 향후 정책

□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2단계 시범사업 착수식에서 **향후 프로슈머 정책을 설명**

○ **자가용 태양광이 증가**하고 있고 **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**을 감안,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

-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**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**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**새로운 비즈니스 기회**로 활용

○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간 전력거래*도 **제주도**(서귀포시)**와 하남시**(상사창동)**에서 추가적으로 진행(5.17)**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

* 현재 수원솔대마을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1단계 사업 진행 중(3.10~)
거래 첫달(3월) 가구당 평균 편익 : (프로슈머) 2,116원, (소비자) 46,317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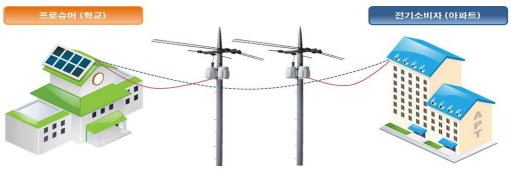
○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**온라인 신청절차*를 마련**(한전, 7월)하고, **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****

* 대형 프로슈머 및 아파트 등의 신청접수, 거래가능조건 확인, 거래승인 등(7월~)
** 프로슈머 거래 안내 책자 작성(5월), 매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프로슈머 거래 설명회 개최(6월~)

참고 1 대형 프로슈머 거래 모델 및 기대효과

1. 대형 프로슈머 거래 모델

< 유형1 : 학교 → 아파트 >



- **프로슈머(학교)** : 스스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**남는 전기를 아파트에 판매**
- **전기소비자(아파트)** : 동일 배전망 내에 위치, **학교로부터 전기 구입**
  → 절감된 전기요금을 모든 세대에 배분

< 유형2 : 빌딩 → 주택 >



- **프로슈머(빌딩)** : 스스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**남는 전기를 이웃 다수 주택에 판매**
- **전기소비자(주택)** : 동일변압기 하단에 위치, **빌딩으로부터 일부 전기 구입**
  → 누진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

2. 기대효과

구분	프로슈머	한전	민간사업자	전기소비자
거래	남는 전기 판매	중개 및 정산	거래대상 발굴	프로슈머의 전기 구입
효과	판매수익 발생 ↓ 전기요금 절감	분산전원 확대 ↓ 송배전망 건설비용 절감	수수료 수익 ↓ 새로운 비즈니스	누진제 부담 완화 ↓ 전기요금 절감

참고 2 「2단계 대형 프로슈머 거래」 실증사업 착수식

1. 개최 취지

○ 소형 프로슈머와 이웃의 전기소비자를 연결하는 1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을 **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2단계 프로슈머 거래로 확산**

○ 프로슈머 전력거래의 **참여 주체를 다양화**하고 **전국적 확산을 유도**

2. 행사 개요

○ 일시 : **'16.5.16(월), 15:00~16:00**

○ 장소 : 상현초등학교 (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31-1)

○ 참석 :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동작관악구교육지원청 교육장, 한전 부사장, 수요관리사업자협회장, 에너지시민연대총장, 상현초등학교장,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100여명

○ 내용 : 대형 프로슈머 거래 기념 축하, '프로슈머-소비자'간 약정 체결 등

3. 행사 세부 일정

시 간	행 사 내 용	비 고
15:00~15:05(05')	▪ 개회선언, 국민의례, 주요 내빈소개	사회
15:05~15:10(05')	▪ '프로슈머 거래' 소개 동영상 시청	
15:10~15:15(05')	▪ 기념사	산업부
15:15~15:20(05')	▪ 치 사	한전
15:20~15:25(05')	▪ 축 사	교육장
15:25~15:30(05')	▪ 대표 '프로슈머-소비자'간 약정 체결식	
15:30~15:45(15')	▪ 대형 프로슈머 기념촬영	주요 내빈
15:45~16:00(15')	▪ 프로슈머 시설 시찰 및 거래 방법 설명	